

내년도 해외건설 수주 700억 달러 안팎 예상

- 수익성 논란으로 무리한 수주 자제, 아시아·토목 수주 증가 추세 -

김태엽 | 해외건설협회 정보기획실장

20 13년 10월 현재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의 430억 달러보다 13% 증가한 487억 달러
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수주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
징은 아시아와 토목부문의 수주 증가다. 특히, 2012
년에는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수주로 건
축부문의 수주가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토목부문에
서 대형 공사들이 속속 수주되면서 플랜트 일변도의
수주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토목 수주 증가 추세

먼저,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의 수주가 202억 달
리를 기록해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미
작년 전체 실적을 초과 달성한 상태다. 수주 금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30% 전후를 차지하던 전체 수주에
서의 비중도 42%로 올라섰다. 아직 연말까지 두 달여
가 남아 있는 시점임을 감안하면 진행 중인 계약 협상
결과에 따라 많게는 3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반면, 중동에서는 202억 달러를 수주하
여 작년의 84%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3분기에

만 71.1억 달러를 수주했고, 현재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공사들의 계약이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
어 그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59
억 달러의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수주 성공으로 태평
양 지역에서의 수주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남미와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 수주가 저
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종별로는 플랜트 공사가 274억 달러로 전체 수
주의 56%를 차지하여 여전히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로이힐 프로젝트와 함께
사우디와 카타르에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철도 공
사 수주에 성공하면서 토목부문에서 작년의 2.6배인
152억 달러를 수주해 전체에서의 비중도 31%로 올라
섰다. 또한, 용역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여전히 활발히
추진되어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8.5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했다.

한편,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저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초 실적 공시 과정에서
일부 해외건설업체들의 특정 현장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며, 지금까지도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건설협회가 2008년 이후 수주 및 시공 추이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주요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해외건설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건설 전체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에서도 해외건설 수주 상위 10개사의 최근 3년 간 연도별 수익률(국내외 매출 합계 기준)은 평균 4.4%인 것으로 공시됐으며, 2013년 상반기에도 1.7%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결국 최근 문제는 지난 몇 년간 단기간에 수주 물량을 급격히 늘린 일부 업체에서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공사 수행 능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700억 달러 안팎 수주 예상

2014년에도 해외건설 수주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수익성 문제가 크게 부상했고 이에 따라 업체들도 무리한 수주 확장을 자제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주 금액은 올해와 비슷한 700억 달러 전후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우선 내년 초 계약이 유력할 것으로 파악된 250억 달러 내외를 포함해 현재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1,10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상당 물량의 계약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는 쿠웨이트를 포함한 중동 국가들이 올해 지연시켰던 상당 물량의 프로젝트를 내년에 발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입찰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4아시아 시장에서의 선전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큰 축인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인도, 중국, 싱가포르 및 중앙아시아 등은 지속 가능

한 경제 성장을 위해 인프라 개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천명하며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는 2020년까지 440억 달러를 투자하여 MRT 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확대할 계획임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수주 기회가 제공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력이 미미한 베트남, 태국 등 주력 국가의 발주 물량 확대에 힘입어 내년에도 올해의 수주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스 프로젝트와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며, 2017년 카자흐 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한 각종 인프라 발주, '전력분야 개발계획 2030', 대규모 주택사업 등 카자흐스탄 인프라 시장의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 중앙아시아 시장도 우리 업체들에게 수주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남아에서는 인도의 '제12차 경제개발계획' 본격 시행에 따른 전망위적 사업 기회 확대가 전망되며, 산업화 초기 단계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절실한 파키스탄, 네팔 등도 발전부문 IPP 사업 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아시아에 비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해외건설 총수주액의 6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중동에서는 기 진출 업체들과의 경쟁에 더해 엔저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일본, 유럽 기업과의 추가적인 경쟁 심화가 예상되지만 올해 지연되었던 주요 프로젝트의 발주가 2014년 본격 추진될 전망임에 따라 금년 이상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주력 시장인 사우디, UAE와 함께 쿠웨이트, 2022년 월드컵 특수가 있는 카타르 등을 위주로 대규모 발주가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GCC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 다변화 및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특집 2014년 건설경기 전망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플랜트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공사가 증가하고 있어 공중 다변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쿠웨이트, UAE, 카타르 등에서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 단위의 철도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사우디에서도 대중교통 개선 등 교통 인프라 발주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 밖에도 사우디에서 정유공장과 석유화학 시설, 발전소, 병원 공사 입찰이 올 연말부터 실시되는 등 2014년까지의 '9차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라크, 알제리 등에서도 발전소 및 가스 프로젝트와 유전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어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리비아의 경우 재건 프로젝트 수요가 상당하나 정치 및 치안 불안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발주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新시장으로 주목받으며 최근 2년 연속 연간 6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중남미 시장은 2013년 발주 예상 물량(Global Insight 기준)이 약 7,500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브라질의 급속한 경기 침체, 멕시코 정부의 에너지 개혁 추진, 베네수엘라·에콰도르 대선 등의 영향으로 당초 발주 예정에 있던 프로젝트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중이다. 196억 달러 규모의 브라질 고속 철도와 120억 달러 규모의 멕시코 정유공장 개선 사업, 88억 달러 규모의 베네수엘라 정유플랜트 FEED 계약 등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남미 경제가 내년에는 2012~2013년의 침체에서 벗어나 3% 수준(IMF 기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관련 인프라 발주 또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중남미 제1의 건설시장인 브라질에서는 '10개년 에너지계획'에 따른 전력, 석유/가스 프로젝트와 항만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될 전망이며,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 2013~2018'에 따

라 멕시코 건설시장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의 산유국에서 정유공장 및 가스처리 플랜트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페루와 칠레 등도 전력 플랜트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장 다변화를 추진 중인 우리 업체들의 수주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 경제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럽 건설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과의 경쟁 구도가 심해지는 추세다.

아프리카에서는 역내 최대 경제 대국인 남아공의 경기 부진 장기화와 말리·중앙아프리카공화국·토고 등의 정치적 불안정,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경제 구조, 소득 불평등, 부정부패, 고실업 등이 여전히 경제 발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도 부진한 상황이다. 일부 산유국을 제외하면 선진국들의 차관 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주요 차관 공여국인 유럽과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가 2014년 인프라 발주 여건 개선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반면, 현재 석유·가스, 광물 등 천연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나이지리아의 '비전 20:2020', 가나의 'Vision 2020' 등 정부 주도의 국가 개발 계획이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 밖에 신흥 가스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잠비크에서 철도, 도로, 발전소 등의 공사 발주가 확대되고, 코트디부아르 등에서도 민자 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3년에 계약 예정이었던 '나이지리아 LNG 생산기지 건설(57억 달러)' 계약이 내년에 체결될 예정이어서 동 지역의 2014년 수주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CERIK